

# “아빠는 진화(進化) 중”

김은남 / 시사저널 문화팀장

**천**성이 게으르는데다 큰소리 나는 것을 유별나게 싫어하는 편인 남편과 나는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 주의(主義)를 고수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살면서 유독 부딪치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육아 문제이다. 내가 특히 남편을 못마땅해 하는 대목은 두 가지이다. 애가 예쁜 짓 할 때만 놀아주는 것이 그 하나. 잘 노는 애를 집적거릴 때는 언제고 애가 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면 곧장 그 솔뚜껑 같은 손으로 어린 것 엉덩이를 팡팡 때려 아이를 기어이 울려 놓고야 마는 남편을 보면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구치곤 한다. 그보다 더 화나는 것이 애가 아플 때다. 밤새 아이가 39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데 그 옆에서 태평하게 코를 고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적개심에 가까운 분노가 불타 오른다. 문제는, 우리 남편만 구제불능이 아니더라는 사실이다. “애 문제 빼면 싸울 일이 있나요?” 주변 여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을 보면서 나는 회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종자가 다른가?’ ‘육아는 결국 엄마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데 최근 참석한 한 모임에서 나는 그간의 갑갑증이 일거에 깨져 나가는, 통쾌한 경험을 했다. 아이 키우는 아빠 16명이 공동으로 펴낸 육아서 <아빠, 뭐해?>(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펴냄)의 출판 기념회 자리가 그것이었다. 이 날 참석한 필자의 상당수는 ‘놀랍게도’ 서너 살 먹은 아이에서부터 중학생 아이까지를 혼자 데리고 나와 있었다. 엄마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아빠라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보기 드문 광경인가. 듣자하니 이 아빠들도 처음부터

이런 아빠는 아니었다고 한다. 얼렁뚱땅 생물학적으로는 아빠가 되었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아직 아빠가 아니었던 이들은 일하는 아내, 고생하는 아내, 또는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위해 육아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기 안에 숨어 있던 ‘부성’을 새로 발견하게 됐다고 했다.

나는 이 아빠들이 쓴 진솔한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 철학자 겸 작가이자 사르트르의 연인으로 유명한 시몬느 드 보바르는, 여성은 ‘타고 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은 남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곧 부성은 타고 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 아빠들을 통해 알게 된 거지만, 요즘 남자들 사이에는 ‘좋은 아빠 되기’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한다. 육아 일기를 쓰는 아빠들의 모임,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들의 모임, 좋은 아빠 모임 등등 직장 내 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좋은 아빠가 되려는 남자들의 모임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 아빠들의 일차적인 공통점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권위적이고 무뚝뚝하고 일방적이었던, 그래서 자녀를 외롭게 하고 당신 또한 외로웠던 아버지 세대와 달리 이들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입을 모은다.

‘좋은 아빠’는 자녀뿐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주술이기도 하다. 일보다 가정, 사회적 성취보다 개인의 행복이 훨씬 소중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것은 곧 ‘나’를 찾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은영**